

“더 줘야” vs “불공정”... 이통사, 5G 주파수 추가할당 공방

<LGU+>

<SKT·KT>

LGU+ “농어촌 5G 공동망에 필요” 20MHz 폭 추가 할당 신청서 제출
SKT·KT “경매제 취지 훼손” 반발
과기정통부, 공식 심의 착수하기로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주파수 3.40~3.42GHz 대역, 20MHz 폭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들 3사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된 각 사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동통신 3사는 의견서 제출을 마쳐, 정부가 공식 심의에 착수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 13일 주파수 추가 할당이 왜 필요한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또 SK텔레콤·KT는 이날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농어촌 5G 공동로밍 품질 보장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은 필수”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의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통 3사와 과기정통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5G 공동망을 구축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최근 발표하 바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요구대로 추가 할당이 이뤄진다면 시기는 이는 10월 1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T·KT가 100MHz를 사용하는데반해, LG유플러스

는 80MHz 폭 주파수를 사용해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 주관 하에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GHz 대역 20MHz 폭 추가 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의 주파수 폭이 동일해지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회사측은 “LG유플러스 장비를 납품하거나 판매계획을 가진 중소제조사는 80MHz 폭의 장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해, 두 개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며 “100MHz 폭을 생산하는 기업에 비해 생산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비 외에도 필터, 케이블 등도 80MHz 폭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KT, “국내 주파수 역사상 경쟁 없이 경매한 적 없어, 명백한 ‘특혜’” 반발

SKT와KT는 국내 주파수 역사상 경쟁 수요 없이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데, LG유플러스만 요청해서 새롭게 받는 것은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라

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5G+스펙 트럼플랜’에서 발표한 대로 트래픽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해 통신 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G유플러스 주장대로 추가 주파수 공급이 시급하다면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공급할 경우, 주파수 자원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SKT와KT는 “LG유플러스의 5G 추가 할당이 경매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LGU+가 3.5GHz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체제 취지는 물론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 경매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또 트래픽 포화와 상관 없이 특정 사업자만 요청에 따라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자칫 ‘할값 주파수 할당’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

혔다. 또 2018년 SKT와 KT가 확보한 3.5GHz 대역 가치에도 왜곡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이번 추가할당 신청 20MHz 폭은 2018년 당시 전파 혼잡감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부는 20MHz 폭에 대해 혼잡감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는 2018년 주파수 폭을 정하는 1단계 경매에서 90MHz 폭 확보를 위해 9라운드까지 응찰한 바 있고, 이번에 추가 20MHz 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는 것이며, 할당대가 역시 전파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있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매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LG유플러스 추가 할당을 염두에 두고 SKT·KT가 지방에서 80MHz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주장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3사의 주장에 놓고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주장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반을 통해 이 문제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AI 전문가 echo@metroseoul.co.kr

“메타버스 대중화”... SKT ‘이프랜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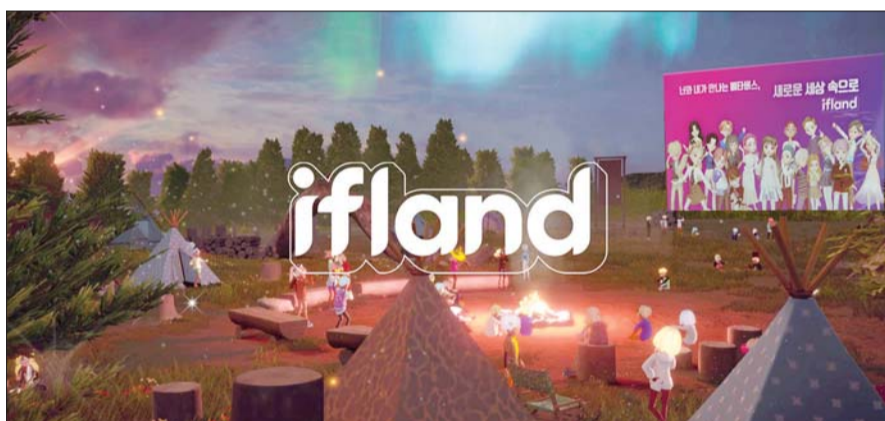
사용성 높인 메타버스 플랫폼 선택
MZ취향 담은 다양한 아바타 마련

메타버스 캠퍼스·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등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SK텔레콤이 5G 시대를 이끌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상공간과 아바타를 통해 이용자의 메타버스 경험을 극대화할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사진)’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프랜드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먼저 출시되고, 추후 iOS 및 VR(가상현실) 디바이스 오кул러스 퀘스트 OS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프랜드 앱(App)은 윈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프랜드는 메타버스가 가진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한 SKT의 새로운 메타버스 브랜드로 ‘누구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수많은 가능성(i f)들이 현실이 되는 공간(land)’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프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메타버스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간소화와 사용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앱을 실행하면 즉시 화면 상단에 본인의 아바타와 프로필이 등장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는 현재 개설된 메타버스 룸들이 리스트업 된다. 개설된 룸들을 사용자의 관심 영역 별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프랜드는 메타버스에 친숙한 MZ세대들이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바타 종류와 감정 표현 액션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이용자들은 성별, 헤어스타일은 물론 아바타 키와 체형까지 총 800여종의 코스튬을 통해 개성 넘치는 버추얼 부캐를 만들고 다채로운 아바타들과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한 아바타 동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전달할 수 있는 감정 표현 모션도 총 66종으로 확대돼 재미있는 소통이 가능하다. 감정 표현 모션은 이용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 추가될 예정이다.

/채윤정 AI 전문가

SKT, 대학 캠퍼스에 AI 교육 노하우 제공

대학 20여 곳에 ‘AI 커리큘럼’ 소개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노하우가 담긴 교육 콘텐츠를 국내 대학에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자사 AI 전문가의 실무 경험이 담긴 강의를 대학 수업과 연계하는 ‘SKT AI 커리큘럼’을 희망 대학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SKT는 지난 13일 전국 20여개 대학에 ‘SKT AI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올 가을학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강의 콘텐츠 설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교수진 100여명이 참석했다.

‘SKT AI 커리큘럼’은 음성인식, 자연어 이해, 음성합성 등 음성 기반 AI 기술을 중심으로 지식 기술, 추천 기술, 대화형 언어 모델,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SKT에서 근무하는 AI 전문가들이 기본 기술 이론부터 최신 알고리즘, 실제 AI 서비스 개발 사례까지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 수준에 대한 질문부터 ‘SKT AI 커리큘럼’을 정규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SKT는 각 대학에서 ‘SKT AI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1개 영역 81개 영상 콘텐츠를 제시했다.

‘AI 커리큘럼’은 2017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기준 전국 18개 대학에서 2000여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신상규 SKT 기업문화센터장은 “SKT는 AI 인재 양성이 학교와 기업 공동의 과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서 대학생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는 이후에도 ‘SKT AI 커리큘럼’ 참여를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별도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과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넷마블, 사내 카페에도 ‘페이코식권’ 도입

사내식당 이어 확대... 편의성 높여

NHN페이코의 모바일 식권 서비스 ‘페이코식권’이 넷마블 사내 카페에도 도입됐다.

NHN페이코는 ‘페이코식권’이 넷마블 컴퓨터 및 넷마블 계열사 코웨이에도 확대 도입돼 사내 카페와 구로 식당가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적용으로 해당 임직원 5000여명은 서울 구로구 신사옥 G-Tower(지타워) 내 식당 및 사내 카페,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조성된 페이코식권존에서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식대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

지프, ‘랭글러 나초 에디션’ 한정 판매

지프가 2021년 ‘올 뉴 랭글러 나초 에디션(이하 나초 에디션·사진)’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 지프는 더 많은 고객들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랭글러의 새로운 외장 색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온 바 있다.

14일 지프에 따르면 이번 ‘나초 에디션’의 ‘나초’ 색상은 기존의 ‘핑크 오렌지’와 같은 진한 원색의 주황색과 ‘헬라 옐라’와 같은 진한 원색의 노란색을 믹스한 듯한 특색 있는 컬러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나초 에디션’은 오직 2021년식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으로만 만날 수 있는



며, 국내에서 30대 한정으로 판매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